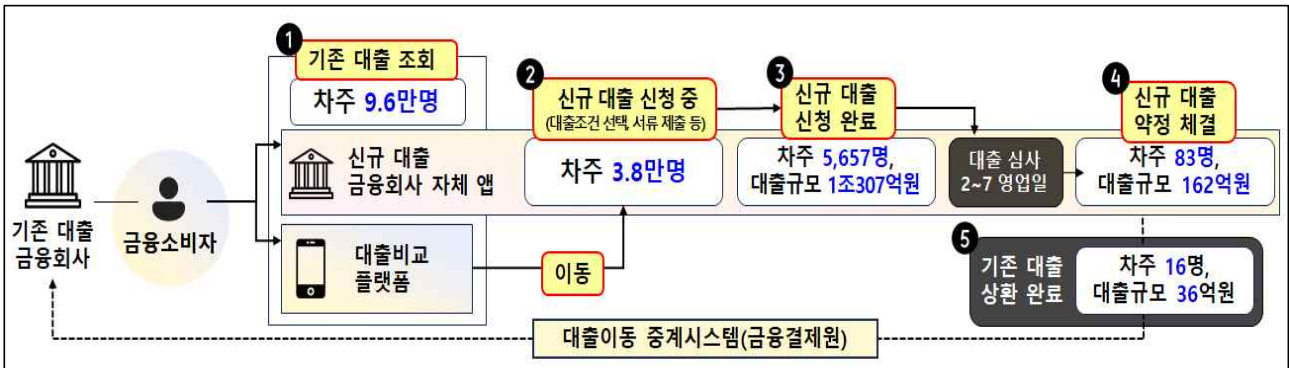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1.12일 20시 누적 기준)

- 1.9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4영업일(~1.12일)간
5,657명의 금융소비자가 총 1조307억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신규 대출 신청

1.9일부터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초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단계별 이용현황 >



1.12일 20시 누적 기준, ①약 9.6만명의 차주가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조회하였다. 9.6만명의 차주 중 ②3.8만명이 여러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 상품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금융회사 앱을 통해 금리유형·상환방식 등 대출조건 선택, 약관 동의, 서류 제출 등 신규 대출 신청 단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대출조건 선택, 서류 제출 등 과정을 거치는 중에도 더 나은 대출 조건 발견, 차주의 단순 변심 등으로 실제 대출 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

④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총 5,657명이며, 대출 신청이 완료된 신규 대출의 전체 규모는 약 1조307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가 갈아탈 대출을 신청한 이후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에 약 2~7영업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 이동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더 나은 대출 조건 발견, 차주의 단순 번심 등으로 인해 약정 체결 등 이후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 가능

④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신규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83명으로, 해당 대출 규모는 약 162억원이다. 대출 약정에 따라 ⑥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하여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16명이며, 대출 규모는 36억원 수준이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대출의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5%p이며, 차주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약 337만원이다.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의 대출 금리 하락 사례 】

- ▶ 사례 ①) '18.10월 약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7억원, 금리 6.2%(혼합형 5년 고정), 만기 30년
→ 은행권 금리 3.8%(혼합형 5년 고정), 만기 20년 (원리금 月 상환액 13만원 감소)
- ▶ 사례 ②) 23.4월 약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5억원, 금리 4.2%(혼합형 5년 고정) 만기 40년
→ 은행권 금리 3.6%(혼합형 5년 고정), 만기 40년 (원리금 月 상환액 19만원 감소)
- ▶ 사례 ③) '18.11월 약정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1.7억원, 금리 5.4%(혼합형 5년 고정) 만기 35년
→ 은행권 금리 3.6%(혼합형 5년 고정), 만기 35년 (원리금 月 상환액 25만원 감소)

아울러 금융당국은 1.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 등 참여기관과 함께 시스템 테스트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서민·실수요자의 주요 주거금융 상품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될 경우, 더 많은 금융 소비자의 주거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박종혁 (02-2100-2992)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	책임자	국 장	백규정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최범전 (02-3145-7135)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040)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	책임자	부 장	조형섭 (02-531-1700)
		담당자	팀 장	김선미 (02-531-1770)